

# 2024년 3직급 승진시험 직무역량평가 문제지(2)

2023. 12. 16(토)

## 문 제

### 1. 보고서 작성배경 및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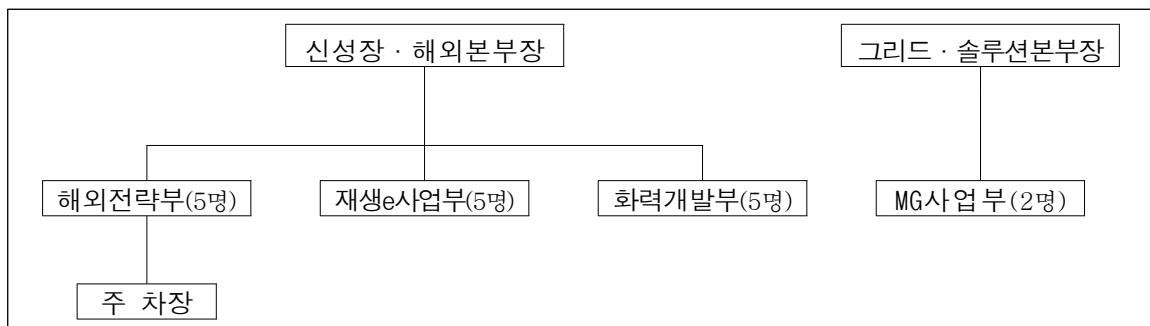
- ☐ 한국의 'A기업'(가상의 회사)은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판매, 해외사업 등 국내외 전력사업 전반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에너지기업이다. A기업은 최근 에너지 트렌드 변화에 따라 주요 지역별 해외사업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 ☐ 귀하는 'A기업 신성장·해외본부 전략팀'의 차장으로서, 신성장·해외본부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성장·해외본부장에게 보고 예정이다. 주어진 참고/고려사항과 제시자료를 활용하여, 신성장·해외본부장에게 보고할 해외사업 추진전략 보고서를 1장으로 작성하시오.
- (지시사항) 우리 회사가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4개 지역별 해외사업 추진전략을 제시

### 2. 보고서 작성 및 평가기준

- ☐ 제시자료들을 활용하여 현재 A기업의 '추진여건'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이 포함되도록 작성
- ☐ 작성 및 평가 주요기준 (총 3개 항목)
  - 논리·정확성 : 보고서 전체의 논리가 일관되고, 구체적 근거에 의거하여 작성할 것
  - 명확·간결성 : 불필요한 정보 없이 핵심내용 위주로 명확·간결하게 작성할 것
  - 완결성 : 보고 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으로, 완결된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할 것

### 3. 참고 및 고려사항

- ☐ 'A기업 신성장·해외본부' 및 '그리드·솔루션본부' 조직도 및 부별 현원(괄호)



- ☐ '신성장·해외본부'는 A기업의 해외사업 발굴, 개발 및 M&A,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조직이며, 신성장·해외본부장은 해당 본부업무는 물론이고 필요시, 회사 내 국내외 해외·재생·신성장 업무 전반에 대해 조정·협의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음
- ☐ '신성장·해외본부' 및 '그리드·솔루션본부' 팀(조직)별 업무분장
  - 해외전략부 : 해외사업 비전·경영계획 및 방침 수립, 진출전략 개발 및 종합조정
  - 재생e사업부 : 해외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수소 등 재생에너지 개발 및 운영
  - 화력개발부 : 해외 석탄·가스 등 전통 화력에너지 개발 및 운영
  - MG사업부 : 국내·외 마이크로그리드(MG) 개발 및 운영
- ☐ 신성장·해외본부장의 지시를 직접 받은 귀하(해외전략부 차장)는 소속부서의 업무분장, 본인의 직위와 상관없이 신성장·해외본부 및 회사 전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시 이들 업무에 대한 조정·협의 등의 권한이 있다고 가정함
- ☐ 답안 작성의 모든 판단기준과 논리는 작성자가 개인별로 사전에 가지고 있던 관련 지식이 아닌, 본 제시문과 자료를 통해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유추·활용해야 함
- ☐ 문제 및 제시자료의 내용, 수치 등은 가상의 설정임
- ☐ 보고서 작성시점 : 2023년 12월 15일(금)

#### 4. 배점 및 작성 유의사항

- ☐ 배 점 (총 100점 만점, **최종 환산 배점 25점**)

항 목	논리·정확성	명확·간결성	완결성	합 계
배 점	40점	30점	30점	100점

- ☐ 작성 유의사항 (아래의 기준과 다르게 작성된 답안은 감점될 수 있음)

- 방대한 정보의 일방적 나열이 아닌 논리적 구조를 갖추어 작성
-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내용 기재 시 감점 (정제된 어휘 사용)
- 답안지 양식 변경불가 (답안지를 변형할 경우 감점될 수 있음)
  - 총 26줄 이내의 개조식으로 작성
  - ※ 제목 줄은 줄 산정에서 제외, 단락 간 구분을 위해 비우는 줄은 줄 산정에 포함
  - 글자체 및 글자크기

구 분	글자체	글자 크기	글자수 제한
제 목	HY헤드라인M	21포인트	최대 21자
본 문	신명조	13포인트	최대 35자(순수 글자수)

- ※ (글자색 / 볼드체) 검정색만 사용, 볼드체 사용불가 (소제목은 가능)

- 장평, 자간 : 조정 불가 (장평 100%, 자간 0%로 작성)

- '표' 사용, 두 줄 입력, 'Enter'버튼 사용 : 불가

- ※ 줄 이동(줄 바꿈) 시 반드시  혹은 마우스 활용하여 줄 이동

- 보고서는 '1,2,3...' → '□' → '○' → '-' 순서로 구성, 참고기호 [※, \*, ( ) 등] 활용 가능

**제시자료 1 : A기업 신성장·해외본부장 발송 이메일 (2023. 12. 3.)**

보낸사람	김○○<Overseas@aepco.co.kr>
받는사람	해외전략부장, 해외전략부 주 차장
보낸일시	2023. 12. 3. 09:30
제 목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주요 지역별 해외사업 추진전략
<p>해외전략부장, 주 차장,</p> <p>이미 다들 알고 있듯이, 전세계 유틸리티 기업들이 글로벌 에너지기업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p> <p>프랑스의 EDF사는 전기차충전사업, SMR(소형모듈원전) 사업 등 신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으며, 일본의 동경전력도 지난 10월 만남에서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사업을 중지하고 재생에너지 수출사업 추진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이와 관련하여 어제 사장님 주관으로 경영진 회의가 있었습니다.</p> <p>현재 강도 높은 재무개선 정책을 시행하여 우리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향후 새롭게 재편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 경영진의 공통된 판단입니다.</p> <p>그래서, 우리 해외전략부에 특별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u>우리회사 해외사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지역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u></p> <p>고맙습니다.</p>	

## 제시자료 2 : 주 차장 PowerTalk 대화 (2023. 12. 4.)

해외전략부장



주 차장, 주 차장이 맡기로 한 지역별 해외사업 추진전략 보고서 관련인데, '기본방향'은 간단명료하게 내용들을 범주화한 후 관련 내용을 작성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후 2:30

주 차장

오후 2:32

예 부장님, 이해했습니다.



해외전략부장



4개 지역별 '추진전략'은 작성시, 소제목(□)은, 단기와 중장기로 분류 후 해당하는 사업명들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에 추진전략을 '기본방향'의 내용들을 활용·연계하여 지역별로 국가와 사업을 각 1개씩 작성해 주세요.

오후 2:38

주 차장

오후 2:40

예 부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러면  
□ 단기 : 유연탄 / AMI 사업  
○ (아프리카) .....콩고 유연탄 사업 진출  
.....  
이런 식으로 쓰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외전략부장



예 맞습니다. 뒷받침 할 만한 근거도 필요하겠네요!  
단기/중장기에 대한 기준은 '28년 이후는 중장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2:41

## 제시자료 3 : 신성장·해외본부 2023년 해외사업 추진현황 中 (2023. 12. 4.)

..... (중략)

### 5. 중점 추진국

지역	중점 국가	주요 추진예정 사업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태양광, 풍력, 암모니아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MG, 풍력, 가스
중동	사우디, UAE, 카타르, 이란	원전, HVDC, 수소, 태양광
동남아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석탄, 가스, MG, 수소, 암모니아
아프리카	남아공, 콩고, 가나, 에디오피아	태양광, 풍력, 암모니아

..... (중략)

### 11. 조직현안

- 해외 마이크로그리드(MG) 사업발주 증가 추세에 따른 조직증원 필요
  - 동남아·오세아니아지역, 투자비(200억원 이하) 소규모 MG사업 발주 증가에 따른 관련조직 신성장·해외본부 이관 및 인원 증원 필요
  -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MG 사업부 현원 5명으로 조정 필요

..... (중략)

### 13. 제도개선

- 원전수출 라이선스 종료시기 도래에 따른 원전수출협약 개정추진(→ 산업부)
  - APR1400노형 해외수출에 사용에 대한 美Westing House사의 수출라이선스 '25년말 종료에 따른 산업부, 한수원 합동 T/F 구성을 통한 공동대응
  - ※ 개정 불투명으로 사업개발단계에서 추진 리스크 예상

## 제시자료 4 : 사내메신저 쪽지 및 주요 처실 업무분장 (2023. 12. 5.)

### 《사내메신저 쪽지》

수신 쪽지 (발신자 : 신성장·해외사업본부장)

주 차장, 본부장이네

그제 본부현안 공유회의에서 부장들과 차장들에게 전달한 내용 중에 명쾌하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듯해서 추가로 전달하네.

보고서 맨 마지막에 회사내부의 타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후속조치가 포함되도록 작성 부탁하네.

그럼, 수고하네.

발신(2023.12.5. 09:34)

수신(2023.12.5. 09:35)

수신 쪽지 (발신자 : 해외전략부장)

주 차장, 부장이야

보고서 작성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

본부장님께 말씀하신 후속조치는 해외사업 단기/중장기 추진 전략에 포함된 사업들과 관련된 사항만 작성을 부탁해!

회사내부 유관부서협의를 각 문장 마지막에(→ 해외전략부) 이렇게 보기 쉽게 작성해주도록 부탁할게.

발신(2023.12.5. 10:17)

수신(2023.12.5. 10:19)

### 《A전력 처·실업무 분장》

구 분	원전정책실	HVDC관리실	조직실	해외사업운영실
담당 업무	- 원전수출협약	- 국내 HVDC 운영관련규정 제·개정	- 정현원 증감원 - 본부간 업무 기능조정	- 해외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

## 제시자료 5 : 신성장·해외본부 업무보고시 사장님 말씀 (2023. 9.2.)

### CEO 말씀

- ☐ 금번 업무보고는 매우 인상 깊었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음
- ☐ 우리 회사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였음.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대외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며 작년부터 재무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 분야에서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함.
- ☐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 발전 등 전통화력을 축소하고 청정e로의 전환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해외사업에서도 탄소 중립 달성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제시자료 6 : 신성장·해외본부장 주관 회의시 본부장 말씀 (2023. 9.9.)

### 본부장 말씀

- ☐ 지난주 신성장·해외본부 CEO 업무 보고시, 사장님께서 우리 해외사업 추진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말씀하셨음. 금일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해외사업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바람.
- ☐ 해외사업의 핵심은 수익성이라고 생각함.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검증된 고신인도·저리스크인 우량사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최근 미국 내 중국산 기자재 사용금지 등 자국이익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예측하여 검토해야 함.
- ☐ 또한 11월 UAE에서 개최될 ‘2030 World Expo’ 개최지 선정 행사관련 ‘부산 엑스포’ 유치에 위해 산업부에서 우리 회사를 전력·에너지분야 홍보관련 주관사로 임명하였음. 우리 ‘신성장·해외본부’에서 적극 협조하여 10월부터 운영될 ‘부산 엑스포’ 홍보부스 참석바람.
- ☐ 비상경영체제를 운영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모회사의 재무 부담이 수반되는 보증과 같은 투자방식은 지양해 주기를 바람. 또한 회사의 자금 여력상 2027년까지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 해외사업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함.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해외사업 추진분야를 다변화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주기 바람.

MKeconomy

## ‘동남아시아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의체(SAREDA)’ 출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국가 간 에너지 확보 및 에너지 안보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급 확보에 어려움을 느낀 유럽 다수의 국가들이 원활한 에너지 확보 및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EU 차원의 에너지 안보 동맹을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유수의 국가들도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의체(SAREDA, Southeast Asia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greement)’를 출범하였다.

지난주 목요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각 국 에너지 분야 장관들이 참여해 열린 첫 회의에서는 향후 중장기 국가별 전력수요 전망, 미얀마 천연가스 중국 수송 확대방안,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소 건설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LNG 가스발전소 건설 기술력이 부족한 베트남, 라오스 등의 국가에서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사전자격 검증제(PQ)\*에 참여한 기업에 한해 투자세액 20% 감면 및 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줘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투자금액 절감을 통해 수익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Q(사전자격 검증제, Pre-Qualification) : 본 입찰에 앞서 상업적/기술적 자격 점검을 통한 입찰자 선별 제도

금번 회의를 기점으로 본 협의체는 매 분기당 각국에서 개최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공유 및 동남아시아 에너지 안보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 oo경제신문, 차oo 기자



III

국가별 에너지시장 동태 및 향후 전망

1. WEC\*의 주요 대륙별 전망

\* WEC: World Energy Council

- [동남아]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이행 수단으로 수소에너지를 선정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 특히 LNG 가스발전으로 부터 생성된 블루수소 확대에 집중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국가별 LNG가스 발전 관련 각종 정책의 규제완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블루수소 시장을 확대할 예정임.

[참고] 그레이수소 : 화석에너지 / 블루수소 : LNG / 그린수소 : 재생에너지

< 주요국가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LNG가스발전소 건설 계획 >

구 분	태국 블루수소 (D LNG 발전소 건설)	베트남 블루수소 (K LNG 발전소 건설)	인도네시아 블루수소 (N LNG 발전소 건설)
용 량	100만톤/년	60만톤/년	70만톤/년
사업규모	약 750억원	약 380억원	약 450억원
투자비*	약 650억원	약 200억원	약 270억원
일 정	24년 2Q 발주예정	24년 3Q 발주예정	25년 1Q 발주예정
기 타 사 항	인도양을 통한 수소운송 용이	사전자격 검증제 참여기업 투자세 20% 감면 등	자국 기업 우선주의 → 기술 내재화 추진

\* 투자비 : 사업 수주 시 실투자 집행금액

- 최근 출범한 동남아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의체(SAREDA)는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LNG가스발전소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28년 이후 ASEAN지역 LNG발전에 대한 건설허가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 단기적으로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LNG 발전소 건설 발주물량 대폭 확대 예정
- 미국·유럽을 주축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사회는 동남아 국가개발에 따른 전원계획의 차질을 우려하여 '27년까지 LNG 발전소 건설 관련 대출 및 기자재 수출 등에 대해 일시적인 규제완화 시행.

구 분	주요 내용
미국	· '27년까지 건설하는 LNG발전소에 대한 정책금융 대출허가
EU	· CCUS를 초기설치하는 LNG발전소에 대해 독일터빈 비과세 혜택제공

## A기업, 2030 암모니아 시장 본격화에 따른 무탄소 신 전원인 암모니아 물량 조기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전략 발표

- A기업은 2030년 암모니아 시장 본격화에 따라 조기 물량선점을 위해 암모니아 해외진출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함
- 이에 따라 암모니아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에너지社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각 국가별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음
  - (남아공) 모회사 지급보증시 장기사업권(50년) 보장
  - (가 나) 초기투자 이후 자국 내 설비 증설시 보조금 제공
  - (미 국) 샌디에고 태양광사업권 우선협상 자격 부여
  - (칠 레) 10년간 배타적 사업권 보장으로 장기 안정성 확보
  - (태 국) '26년까지 800억원 이상 투자조건으로 장기사업권 및 세제혜택 부여

### <주요국의 암모니아 채집 현황 및 관련사업 입찰시기>

지 역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국 가	남아공	가나	미국	칠레	태국	베트남
매집량 [천만톤]	76.1	100.5	115.1	70.3	81.1	90.8
채집률 [%]	9.6	72.7	44.8	14.5	21.0	47.0
잔여량 [천만톤]	68.8	27.4	63.5	60.1	64.1	48.1
입찰시기	2029년	2024년	2024년	2029년	2025년	2028년

- \* 매집량 : 암모니아 채집이 가능한 총량 (기채집량 + 잔여량)
- \* 채집률 : 매집량 대비 현재까지 채집한 양 (채집률 = 기채집량 / 매집량)
- \* 잔여량 : 향후 채집 가능 양 (매집량 - 기채집량)

-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시사점

'30년 이후 암모니아 시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잔여량(규모)를 고려한 미래채집가능량, 국가별 인센티브 등을 종합 고려한 국가 선택이 핵심

## 제시자료 10 : 글로벌 에너지시장 동향 (□□□ 경영경제연구원, 2023. 10. 5.)

미국, 아시아 등 많은 국가에서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러시아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정책으로 'Repower'를 발표하였음. 공통된 내용은 2030년까지 화석연료의 소비목표량을 축소하고, 암모니아 활용 확대를 목표로 제시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社は 암모니아 물량을 조기에 선점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해야 함.

글로벌 암모니아의 원가는 2050년까지 매년 평균 6.5%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최적 운송경로 설정이 원가경쟁력 확보에 핵심 요소임. 따라서 물량 조기 선점을 위한 추진 국가 선택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함.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된 글로벌 암모니아 허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은 기 구축되어 있는 운송경로를 활용함에 따라 무관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태평양을 통한 대규모 운송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하였음. 또한 동남아시아의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간 별도의 클러스터 구축으로 클러스터 내 채집된 암모니아를 일괄적으로 압축, 액화, 운송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시자료 11 : □□일보 언론기사 (2023. 11. 25.)

BCG에너지컨설팅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국 태양광 시장규모는 18년 58억 달러 규모에서 23년 534억 달러 규모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미국 태양광 시장의 조기선점 필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 정부는 IRA법(Inflation Reduction ACT)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2025년까지 PTC(발전량세액공제), ITC(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 제도를 통해 공공 및 민간 신재생 투자요인을 증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한국의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태양광 시장 조기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A기업 등 대다수 국내기업의 중국산 기자재 의존율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 국산 기자재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 [단독] 중동 “고유가 기조”에 따른 싱글벙글, 정부사업으로 돈 푼다

중동 주요 산유국, 장기간 고유가 기조로 인한 풍부한 자금유동성을 바탕으로 쇼핑에 나서...

‘24년 초부터 주요 산유국 정부들이 탈탄소 기조에 맞춰서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건설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OPEC+ 감산정책에 따라 중동 각국의 입찰사업 확대 기조가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유틸리티사의 사업수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우디 사업은 높은 신인도를 바탕으로 사업리스크가 낮아 안정적이며, 아울러 높은 수익성(약 10% 이상)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A에너지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향후 중동지역에서 대규모 우량사업 발주가 예상되며 입찰경쟁시 기술이전 가능여부, 사업수주 경험, 기술력 등에서 우위를 점한 유틸리티사가 수주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사우디 NET제로 정책 발효에 따른 건설사업 수주환경 분석

□ (Net제로 전략) 탈석유 및 신재생 투자 확대를 통한 NET제로 달성 추진

<사우디 NET ZERO 관련 건설사업 추진계획>

구 분	태양광	수소	원자력
사업기간	2023~2027	2028~2038	2028~2088
투자수익률	12.1%	5.5%	14%
투자비	900억원	1,400억원	1.1조원
리스크	낮음	보통	낮음

□ (세부추진계획) 부문별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정부주도 입찰사업

- [태양광]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해외 유틸리티 대상 계약 체결 유력
- [수 소] 기술 내재화를 위한 자국 기업 대상 사업 추진 예정
- [원자력] 시공경험이 풍부한 해외 유틸리티 대상으로 발주 추진 전망

□ (해결과제) 발전믹스 재편에 따른 사우디 내 송전망 건설 및 확충이 시급

- 송전망 건설·확충을 위한 국가 간 연계 HVDC 사업 건설 로드맵 발표
  - 입찰예정 : ‘28년(35년간) / 투자비용 : 5,900억원 / 투자수익률 : 11% / 리스크 : 낮음
  - 중동 내 유사 사업경험이 있는 해외유틸리티 대상 정부 주도 입찰 예정

## 중동 원전 확대 가능성에 따른 해외 원전건설 사업동향 분석

### □ 중동 원전 확대 노력

- 최근 원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NET ZERO 정책기조가 확산되면서 중동지역 신규 원전 발주물량 대폭 증가 예정


(기준일 : '23. 8월 / 단위 : MW, 조원)



### □ 해외 원전사업 수주 경쟁력 비교

-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제시하는 중동지역 원전사업은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유틸리티사의 치열한 경쟁구도 형성이 예상됨
- 브랜드 파워, 사업수주 경험 및 기술력 수준 등 종합적 측면에서 국내 에너지기업 A사는 높은 사업수주 경쟁력을 보유함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시가총액(천억원)	90	64	75	29	23
사업경험	100	110	77	97	54
기술력	100	95	80	81	80
국 가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A기업	<b>보도자료</b>	
배포일부터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일시	2023. 10. 25(수)	

## A기업, UAE 해저 송전망사업(5.4조원) 본격 건설착수

- 해외사업 신규 영역을 개척하여 중동지역 HVDC 사업 수주 경쟁력 확보

- A기업은 10월 22일 총 사업비 약 38.4억 달러(5.4조원) 규모의 UAE 해저송전망 사업에 필요한 금융계약을 체결하였음
  - 본 사업은 작년 12월 A기업 컨소시엄(A기업+큐슈전력+EDF)이 국제 경쟁입찰로 수주하였으며,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초고압 직류 송전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기술을 적용하여 3.2 기가와트(GW) 용량의 해저 케이블 및 변환소를 2026년까지 건설하고 35년간 운영하는 사업임
- \* HVDC 송전방식 : 발전소에서 교류로 생산한 전기를 직류로 변환, 송전한 뒤 다시 교류로 변환하는 기술
- 본 사업은 A기업 최초의 해외 전력망 투자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축적된 HVDC 기술력과 경험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음
- 특히 최근 중동은 NET ZERO 정책 발효에 따른 발전믹스 재편 초기단계로 향후 약 10년간 HVDC 사업의 지속적인 발주량 증가가 예상되어 초기시장 선점에 따른 사업 경험을 활용, 추가적인 사업 수주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함

## 내년 정부 ODA예산 6.5조 ‘최대’

ODA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 ‘공적원조자금’을 뜻하는 말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목표로 한다. 그 이면에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익을 확보하려는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다.

※ ODA를 활용한 사업추진시, 소규모의 사업비 전액(사업당 300억 이하)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장기저리의 금융조건으로 차입금 100%로 금융조달이 용이해 금융경쟁력 확보가능

.....중략

한국 정부의 내년도 ODA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6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ODA자금집행 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이며, 2019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한국 정부의 ODA자금을 지원받는 수원국으로 지정된 개도국은 한국기업과 인프라(수도, 전기, 통신 등) 구축사업 추진시 최대 300억원의 지원금을 장기 상환기간(40년) 및 낮은 금리수준(1% 내외) 등 우호적 금융조건 제공받을 수 있어 관련사업 추진이 용이해 보인다.

.....중략

정부는 수원국이 요구하는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패키지 사업 등을 발굴해 수원국의 실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국내 기업들과 연계를 강화해 소외된 개발도상국들의 전력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여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첫 번째 수원국으로 오세아니아의 팔라우가 선정되었으며, 팔라우 정부는 소규모 섬지역 전력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제시자료 16 : 연합신문 기사 (2023.12.10.)

### 팔라우 정부 “섬지역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 추진 예정”

박○○ 특파원 = 팔라우 정부는 자국내 소규모 섬지역에 대해 에너지 자급자족 및 탄소저감 실현 등 Net-Zero 실현을 위한 ‘에너지 자급자족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총용량 120MW, 사업비 약180억원)을 2024년중 입찰 예정이라고 어제 발표했다.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MG)란 제한된 지역에서 전력망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전력을 자체 생산·저장·소비하는 지능형 전력계통 체계를 말한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그 외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확대가 가능해 보인다.

또한 팔라우 정부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경험 및 운영기술을 자국으로 기술이전 제의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현재 일본, 독일, 한국 전력회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제시자료 17 : A기업 보도자료 (2023. 4. 26.)

### A기업, 산업단지 MG 구축, 정부사업 2년 연속 수주

- A전력은 지난 4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한 『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을 2년 연속 수주
- A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하는 전남 여수산단 사업은 석유화학 중심의 노후 산단을 글로벌 Net-Zero 대표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그린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 A기업은 2009년부터 에너지자립섬(가파도, 가사도 등),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다양한 국내외 실증 경험을 통해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경북 구미 산단 사업의 수주를 통해 그 역량을 입증받았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